

렌즈에 담긴



글 백승렬 기자

삶과 자연의 순간들

-3...2...1.....1...2...3+

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의 해수욕장, 하천, 계곡은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난 피서객으로 붐볐습니다.

북한강과 남한강 등 하천 휴양지에서는 피서객들이 수상스키와 레프팅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식혔습니다. 올림픽이 열린 파리에서는 양궁, 사격, 펜싱, 태권도, 배드민턴 등 출전 종목에서 승전보가 잇따라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




소양강댐 물안개를 색칠한 석양
양지웅 기자



강릉시 호박 터널의 다양한 호박과 박
유형재 기자

코스모스 활짝 핀 강릉 바닷가
유형재 기자



새끼에게 먹이 주는 피랑새[다중촬영]
유형재 기자





광명동굴 시원한 피서
홍기원 기자



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해무 덮친 마천루
손형주 기자



빛나는 서울-달
김성민 기자



아르떼 박물관 부산점 미디어아트
손형주 기자



1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 신준희 기자
 2 태권도 남자 58KG급 준결승전에서 발차기하는 한국 박태준 신준희 기자
 3 탁구 여자 단식 서브 넣는 신유빈 신준희 기자

4 폐회식 신준희 기자
 5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스피드 예선전 김도훈 기자
 6 남자 양궁 활시위 당기는 김우진 김인철 기자

